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추정업무 소홀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내 용

경상남도 창원시 등 15개 시·군에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⁷⁴⁾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 물건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8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화면번호 7592_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일괄조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1차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구축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하여 관내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 및 지분 증가 등을 확인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무조사(서면조사 등)를 통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

74)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

산(법인장부가액)에 대하여 과점주주 지분율 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원시 등 15개 시·군에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부과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래 [표]와 같이 357건 / 1,015,354천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고 부과누락 하였다.

[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추징내역

지자체명		건수	금 액	지자체명		건수	금 액
합 계		357	1,015,354,820	-	-	-	-
창원시	소계	5	11,636,856	함안군	40	428,628,120	
	마산회원구	1	177,830	창녕군	18	9,620,520	
	의창구	3	9,730,136	고성군	15	14,930,640	
	진해구	1	1,728,890	남해군	12	11,302,570	
진주시		18	59,552,940	하동군	25	8,285,429	
사천시		2	433,640	산청군	12	6,682,897	
김해시		71	253,833,760	함양군	21	5,494,800	
밀양시		26	51,088,097	거창군	30	53,089,174	
의령군		52	99,063,419	합천군	10	1,712,008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상세내역 별첨(별송)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 진주시장, 사천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의령군수, 함안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거창군수, 합천군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물건 중 부과누락된 취득세 357건 / 1,015,354천원을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